

대학 글쓰기에서의 (학술적)¹⁾ 에세이 쓰기의 효과와 의미

이승은²⁾

〈차례〉

- | | |
|---------------------------|--------------------------|
| 1. 문제제기 | (2) 학술적 에세이 쓰기 전 활동 |
| 2. 학술적 에세이 쓰기의 필요성 | (3) 학술적 에세이 수업 결과 |
| 3. (학술적) 에세이 쓰기 수업의
실제 | 4. 학술적 에세이 쓰기의 효과와
의미 |
| (1) 학술적 에세이 개념 | |

1.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을 비교할 때 대학생들에게 교양과목은 전공과목에 비해 다소 편안한 수업이라 인식된다. 하지만 대학신입생들

1) ‘학술적’이라는 어사에 괄호를 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는 수업 전략에 관계된 것이다. 뒤의 본문 ‘(3)장 학술적 에세이 수업 결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그 내용은 각주2)에도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이하 읽기의 수월성을 위해 제목 이외의 괄호는 생략한다.

2) 연세대학교, happysel2000@hanmail.net

에게 교양수업으로서의 〈글쓰기〉³⁾⁴⁾는 수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과목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⁵⁾ 게다가 요즘처럼 학생들이 평가에 예민한 경우, 강의를 듣고 시험을 봐서 평가를 받는 여타 과목과 달리, 글쓰기 자체가 평가의 주요항목이 되는 〈글쓰기〉는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과목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글쓰기〉가 교수자의 강의 외에 글쓰기 주제에 관련하여 학생들의 발표나 토론 등 학습자 스스로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업이라는 것 역시 포함된다. 〈글쓰기〉는 다른 과목과 달리 교수자의 강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교과목이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인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수업 활동의 주체 역할을 톡톡히 해 내야 하는 과목이 바로 〈글쓰기〉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글쓰기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수업의 주체임을 경험케 하는 수업이기도 하다.⁶⁾

물론 교수자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서 학생들의 글쓰기를 이끌고 갈 것인가의 문제에 교수자의 영역이 놓여있는 것이지만, 강의 내용으로 교수자 역량이 평가되는 여타 수업과 달리, 학습활동 자체가 ‘글쓰기’인 것이고 이 쓰기의 주체가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글쓰기〉는 교수자가 학생들의 보조자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로 교수자 역량이 평가되는 수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강의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말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라는 점에서 글쓰기 수업은 교수법의 이상이 실현되는 현

3) 한국의 대학에서 〈글쓰기〉라는 명칭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지 대략 10여년이 흘렀다.

4) 이 글에서 사용하는 〈〉표시는 강조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 다른 특정한 의미는 없음을 밝히둔다.

5) 필자는 대학에서 〈글쓰기〉 혹은 글쓰기 관련 과목을 가르치면서 매학기 학생들로부터 글쓰기 과목에 대한 부담감을 육성으로 생생히 듣고 있다. 이는 다른 글쓰기 교수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앙대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신현규, 2011: 124), 본인의 글쓰기 능력이 우수하다고 여기는 학생은 12%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대학 신입생들이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글쓰기에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원만희(2009: 247)는 교과과정 안에서의 글쓰기는 능동적인 학습참여를 의미하며 능동적인 학습양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장이기도 하다. <글쓰기> 교과 이전의 <대학국어> 시절의 수업과는 엄연한 차별성을 갖고 있고, 학생들이 학습의 적극적 주체로 놓여진다는 점에서 <글쓰기> 수업은 학생들에게 주체로 설 것이 요구되는 새로운 현실이다.

그러나 글쓰기 수업의 새로운 현실은 학생들에게 고역스러운 현실이다. 그것이 고역인 이유는, 현재 한국의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현실에 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학습의 주체였던 적이 없었던 그들에게 글쓰기 수업의 새로움은, 글쓰기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셈이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수동적으로 흡수하기만 하면 인정을 받았고 그 결과로 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입학과 동시에 수업에서 교수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글을 써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대학 신입생이라는 학습자가 처한 이런 현실은 그들에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닐진대 글쓰기 수업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실제 수업에서 자신들의 글쓰기에 앞서 학문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글들을 읽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학생은 학문 공동체의 일원이 쓴 글을 읽고 모방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놓인다. 대개 교수자들의 경우, 기성의 필자들 중에서 이미 검증된 필력을 인정받은 필자들의 글들을 좋은 글의 예로서 제시한다. 이는 쓰기 수업에 앞선 일종의 읽기 수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실제 수업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실제 읽기 능력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⁷⁾ 교

7) 박정길(2006), 한금윤(2006), 신현규(2011), 진정일(2011)은 학생들의 독서 실태를 설문 조사 등의 방식으로 통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조사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학생들의 독서의 질과 양이 높은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과서와 참고서 그리고 어릴 때 읽은 동화책 이외의 책읽기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을 만나는 일이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읽기>를 통한 독해능력이 <쓰기>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인 것만은 분명하다.⁸⁾ 그런데 쓰기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학습하는 읽기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독해 능력에 좌절하고, 이를 모방하여 자신이 새로운 글을 써야 한다는 것에 더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학습자가 수업의 주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글쓰기 수업의 특성(이러한 특성은 교육이념의 실현이지만) 학생들에게는 일종의 소외를 경험하게 하는 아이러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학기초부터 교수자에게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요구받지만, 자신이 수업의 주체이자 학문적 주체라고 느끼기에 앞서 대학에서 접하게 되는 학문 공동체와 자신은 다르다는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이 그들의 글쓰기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그들은 글쓰기를 하기도 전에 자신감을 상실함으로써 글쓰기에 대한 애정은 커녕 글쓰기에 대한 공포에 먼저 직면하게 된다.⁹⁾¹⁰⁾

그래서 이 글은 대학신입생에게 글쓰기 교육을 실시하면서 경험한 바를

8) “대학에서 16주 동안의 강의 기간 중 ‘읽기’와 ‘쓰기’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교육내용의 중심이 된다”(신현규, 2011: 128)라고 말할 정도로 글쓰기에 있어서 읽기 교육은 중심적인 과제가 된다. 이는 글읽기가 글쓰기에 있어서의 문제제기 및 문제 해결에서의 사고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현재 각 대학의 글쓰기 교재를 분석해 보더라도 교재의 집필자들이 다양한 읽기자료를 싣고 있다는 것은 글쓰기 담당 교수자들이 실제의 수업현장에서 읽기의 경험을 얼마나 강조하는가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

9) 미국의 대학글쓰기 연구에서는 대학신입생 필자들을 “국외자” “이방인” “관광객” “여행자” 등의 은유적 표현으로 부르기도 한다. 특정한 경계선의 은유 안에서 학생들을 경계의 밖에 있는 자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낯설과 공포를 주는 조건인 셈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윤빈(2012: 165-166)을 참고할 것.

10) 김병길(2012: 89)은 실제 수업 시에, 영화 <파인딩 포레스터>를 학생들과 함께 보게 될 때 학생들이 영화의 한 장면인 글쓰기 장면에서 자동기술법으로 문장을 술술 풀어나가는 주인공을 부러움과 의구심으로 바라본다고 특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토대로 학생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을 길러줄 수 있는 글쓰기의 양식 가운데 하나로서 학술적 에세이 쓰기를 제안하고 그 효과에 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필자가 8년 정도 대학 신입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경험적으로 얻은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학적인 데이터의 검증이기보다는 질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서임을 밝혀둔다.

2. 학술적 에세이 쓰기의 필요성

각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글쓰기 교육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수업목표는 없으나¹¹⁾ 각 대학의 글쓰기가 ‘학술적 글쓰기’¹²⁾라는 범주 안에서 ‘논리력과 비판력’이 강조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를 공통된 수업 목표로 보는 데에 무리는 없을 듯하다. <학술적>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양한 쟁점과 변화가 있어왔지만¹³⁾ <학술적>이라는 개념은 대학 글쓰기의 실제에서 ‘논증’이라는 공통 사항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⁴⁾ 학문활동의 필수요소인

11) 각 대학의 글쓰기 교재에 일관된 교육 관점과 방향 목적이 부재한데다가 대학교재로서의 구성을 관통하는 논리가 부재한다는 지적으로는 정희모(2008: 245-257), 나은미(2008: 28)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12) 대학에서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대학국어>가 <글쓰기> 과목으로 대체된 후, 중등 교육의 쓰기 교육과는 변별되는 대학 글쓰기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10여년의 과정에서 대학에서의 글쓰기의 주된 개념이 <학술적 글쓰기>로 통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학술적 글쓰기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기는 하다.

각 대학의 <학술적 글쓰기> 개념 비교를 살펴보면 이윤빈(2012)의 논문을 보라. / 원진숙(2005: 57)은 중등 쓰기 교육과 차별되는 대학쓰기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술적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13) 이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이윤빈(2012: 165-18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4) <학술적>이라는 어사에 내포된 의미가 대학 글쓰기의 경우, 논증과정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각 대학의 교재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가)가톨릭대학교: 진리 추구의 자유에 기반을 두고 지식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함->논증 중심의 내용적 조건, 일정한 형식적 조건, 윤리적 조건.

(나)성균관대학교: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주장이나 견해가 옳다는 것을 객관적

논리적 사고능력이 글쓰기에서도 필수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논증적 글쓰기¹⁵⁾는 학술적 글쓰기의 하위 항목으로 대학 신입생 글쓰기에 필수적으로 교수 학습되고 있다.

정희모는 대학에 〈글쓰기〉가 도입된 초기에 〈글쓰기〉 교과와 딜레마를 두고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한 편으로는 문화, 문학 교육을 통한 교양적이고 창의적 인간 계발이라는 전통적인 교양정신이 강조되고, 한편으로는 어법과 문장력을 통한 표현 기술력의 강화라는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효용이 강조되기도 한다. (중략) 사실 이 두 요소는 다른 교양 과목에서도 같이 언제나 대립되고 상충된 교육 목표로서 「글쓰기」 과목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정희모, 2001: 186)

〈글쓰기〉가 인문교양 교육의 측면과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측면 모두를 갖고 있으며 이 두가지는 상충된 교육 목표로서 글쓰기 교과와 성격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글쓰기의 특수성이 이중적인 상황 속에 있음을

으로 입증하는 글이라면 형식에 관계없이 학술적인 글이라 할 수 있음

(다)연세대학교: 학습이나 연구과정에서 얻은 학문적 성과를 알리기 위해 해당 분야의 지식과 언어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식의 글로 표현하는 것. 대학에서 많이 쓰게 되는 학술적인 글의 종류에는 학술적 에세이, 보고서, 학술 논문 등이 있음. 학술적 글쓰기의 장에 논증의 항목을 독립된 장으로 배치하여 강조하고 있음이 그 한 예가 될 것임.

(라)한양대학교: 학술적 에세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술적 글쓰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통적인 정보와 지식의 창출을 통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열어주는 글쓰기” 이에 대한 것으로 학술적 에세이가 있는데 이는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일련의 근거나 증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글. / 각 대학은 모두 세부적으로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을지라도 공통적으로 학술적 글쓰기의 핵심적 조건으로 논증을 전제하고 있다.

- 15) 논증적 글쓰기를 통해 논리력, 비판력 모두 학습된다고 할 수 있다. 논증이란 특정 주장에 대한 근거를 통해 타당성을 밝히는 것인데 이 과정에는 비판적 사고력이 작동한다. 가령 제기한 문제가 주장을 통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났는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중요하고 적절한지, 근거로서 제시한 자료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지, 근거로서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은 심층적이고 논리적이며 다각적인지에 대해 반성적, 비판적 사고력이 개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미선, 2012: 44)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상충된 목표는 신자유주의의 흐름 아래서 대학이 제외되는 행운을 누리지 못한 탓에, 글쓰기의 이중적인 특수성이 특수성 그 자체로 구현되지 못하고 인문교양 교육의 측면을 도외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글쓰기>가 도구교과로 규정되는 양상을 보여왔다.¹⁶⁾ 그에 따라 인문교양교육의 일환이기도 한 <글쓰기>의 목표가 논리적 글쓰기(논증적 글쓰기¹⁷⁾)로 강조되어 글쓰기 교과의 정체성을 도구과목으로만 한정짓는 결과를 불러왔다.¹⁸⁾ 논리적 사고능력은 사회학, 역사학, 문학, 철학 등 인문학 전 영역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지 글쓰기 과목 하나에 의해 학습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글쓰기의 과정은 변증법적인 통합적 사유의 과정이기에 글쓰기를 수단 혹은 도구로서의 과목으로서만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글쓰기 교수자들이 글쓰기 교과목에 독립교과로서의 정체성을 갈망할지라도 글쓰기교과의 특수성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⁹⁾

16) 글쓰기 교재를 살펴보면 <글쓰기>를 전공과목 지식의 습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구학습 과정으로 규정하여 교과과정을 개발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숙명여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대 등의 글쓰기 교재) / 이에 대한 각 대학 교재의 구체적인 분석은 김병길(2012), 구자환(2012), 신현규(2012), 지현배(2012), 권혁명(2012)을 참고할 것.

17) 논증적 글쓰기 혹은 논리적 글쓰기라는 명칭은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논증과 논리의 관계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의 'logic' 이나 한자어의 '論理'는 공통적으로 '말로 이치를 따짐' '말의 앞뒤를 이치에 맞게 체계를 세우는 일' 이다. 논리를 세운다는 것은 말, 생각, 글의 앞뒤가 맞는지 그 이치를 따져보는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은 명백한 것과 필연적인 것에는 주장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논리적인 이치를 따지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갈등상황에서야 논리적인 이치를 따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논증의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김미선, 2012: 47-48) 즉 논리를 세우는 과정에 논증의 방식이 개입되기 때문에 논리적 글쓰기와 논증적 글쓰기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논리적 글쓰기와 논증적 글쓰기는 같은 개념으로 보아 동일하게 사용하기로 하겠다.

18) 권혁명(2012), 원만희(2009)의 논의들은 글쓰기를 도구과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학 글쓰기의 위상에 유리하다는 입장에서 기술되었다.

19) 글쓰기 교과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도구과목으로 한정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정보화 시대에 태어나 첨단 의 기계들에 둘러싸여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글쓰기의 의미를 자신의 전공교과의 도구과목으로서만 한정시켜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수업동기 유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 매체의 블로그나 댓글 등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글쓰기를 즐겼던 학생들에게 제도권 안에서의 글쓰기 교육의 특수성을 드러낼 필요는 논리적 글쓰기(논증적 글쓰기) 외에도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논증적 글쓰기는 특정 문제를 논리적 근거로서 정당화하여 궁극적으로 독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글쓰기라 할 수 있다. 주장에 대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서 이는 주로 논증의 방식으로 기술된다. 여기에는 논설문, 학술 논문, 평론뿐만 아니라 대학 강의에서 과제로 제시되는 보고서 등도 해당한다.(김미선, 2012: 57/ 손동현, 2006: 540)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 글쓰기의 전부가 논증적 글쓰기로 오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 글쓰기의 교육목적이 인문적 교양을 겸비한 지성인을 기르는 것에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논증적 글쓰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반성적 논의는 귀 기울여볼 만하다.

사실 논증적 글쓰기가 다양한 글쓰기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논증적 글쓰기는 설득을 겨냥하는 글쓰기이다. 이는 의견이 부딪히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며, 삶을 고양시키는 적극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극적인 측면과 더 강하게 연결

취하는 논의로는 김병길(2012), 서정혁(2006)을 들 수 있다. 김병길(2012: 28)은 글쓰기 교과가 대체 교과목으로서의 지위를 얻는 것에 노력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는 “그 정체성 찾기에만 매달리는 한 오히려 대학글쓰기 관련 교과목의 운신 폭이 그만큼 줄어드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 것”이며 “대학 글쓰기 교육의 외연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 경계 밖의 영역들은 자연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정혁(2006: 362)은 “전공교육은 자유교육과는 달리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연마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교육의 이념을 표방하는 교양교육은 단순히 여러 교육 중의 한 부분으로 그치지 않고, 교육의 본래적인 참 뜻을 지키는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되어 있다. 그렇게 때문에 오히려 공감과 감동을 겨냥하는 글쓰기가 더 차원 높은 글쓰기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문학과 예술과 종교는 바로 이런 공감과 감동을 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감상문 쓰기를 비롯하여 정서와 감정을 표출하는 다양한 글쓰기가 오히려 인문교육에서 근원적인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박정하, 2003: 176)

논자 박정하는 글쓰기 교육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표현하는 영역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글쓰기’란 말이 ‘논술’로 대체되는 현상 속에서 제도권 교육이 논증적 글쓰기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박정하, 2003: 177)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논증적 글쓰기를 곧 학교에서 배우는 글쓰기의 주된 형식으로 경험했던 대학 신입생에게 학술적 글쓰기라는 명목으로 논증적 글쓰기가 한 한기 내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가 바로 논증적 글쓰기의 논리력, 비판력 항목을 포함하면서도 중등교과과정에서 경험했던 논술과는 다른 특성의 학술적 글쓰기가 대학에서 요구되는 지점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글쓰기의 이중적 특수성의 한 양상인 인문교양교육의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논증적 글쓰기와 차별되는 글쓰기를 대학신입생 필자들에게 경험하게 할 필요가 한 학기라는 짧은 글쓰기 수업시간에 요청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학생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가능케 하는 글의 장르로서 <(학술적)²⁰⁾ 에세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학술적 에세이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적 짧은 형식의 글을 학술적 에세이로 보기도 하는 반면에, 소논문·평론·칼럼·학

20) 이 논문의 제목에서도 ‘학술적’이라는 어사를 괄호처리하였다. 실제 학술적 에세이 쓰기에 서 학생들이 에세이에 강조점을 두어 쓰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에세이에 방점을 두어 강조하더라도 ‘학술적’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술 논문 등 논증의 형식을 통해 주장을 펼치는 모든 글을 학술적 에세이라 보기도 한다.²¹⁾ 하지만 이 모호함에는 학생들에게 〈학술적〉이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학문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긍정적 계기 또한 내포되어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하도록 하겠다.

3. (학술적) 에세이 쓰기 수업의 실제

(1) 학술적 에세이 개념

이 장에서는 필자가 학생들에게 행하고 있는 학술적 에세이 수업의 실 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사항을 생략하고 필자의 수업을 잠시 개괄하자 면, 전반기에는 논리적 글쓰기, 후반기에는 학술적 에세이를 씀으로써 한 학 기 동안 학술적 글쓰기 수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수업은 크게 중간고 사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 중간고사 이전의 수업은 논리적 글쓰기(논증 적 글쓰기)에 주로 할애된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인 수업 하반기에는 학술 적 에세이 쓰기를 위한 활동들로 수업내용이 채워진다. 수업 하반기에 학술 적 에세이가 과제로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언제나 동일하다. 수업 전반부에 썼던 논리적 글쓰기와 학술적 에세이의 차이점이 무엇이라는 것이다.²²⁾ 즉 학술적 에세이의 개념에 대해 학생들은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한다.

21) 전자는 연세대학교 글쓰기 교재의 학술적 에세이 개념이며 후자는 한양대 글쓰기 교재의 학 술적 에세이 개념 규정이다.

22) 이재성(2012: 573)은 학술적 에세이의 긍정적 측면의 하나로 논술과의 유사성을 들고 있다. 학 술적 에세이가 대학 신입생들에게 중고등학교에서 학습한 ‘주장하는 글’이나 ‘논술’ 과 유 사하기 때문에 필자가 이미 갖추고 있는 문식성을 토대로 새로운 문식성을 친숙한 느낌을 가 지고 함양할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학술적 에세이의 개념 설명에서 문제적인 것은 우선 <에세이>의 개념이다.²³⁾ 한국의 글쓰기 풍토에서 이 에세이의 개념은 사실상 엄밀하게 정의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에세이의 번역어로 여겨지는 수필 개념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²⁴⁾ 우리가 ‘수필’이라는 어사를 사용할 때와 ‘에세이’라는 어사를 사용할 때 실질적으로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필은 문학 장르의 하나로 분류되지만, 에세이라고 할 때는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을 자유롭게 서술한 글에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한 논리적인 글쓰기까지 모두 에세이로 불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에세이의 외연은 운문을 제외한 산문적 글쓰기 전부를 포괄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술적 글쓰기의 한 분야로서 학술적 에세이 쓰기를 제시했을 때 학생들이 제기하는 논리적인 글쓰기와 이 차이점에 관한 질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핵심적인 사안인 것이다.

문제는 대학글쓰기 교재 어디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각 대학교재의 학술적 에세이에 대한 개념 규정은 제각각 다르며²⁵⁾ 논리적 글쓰기와 이 차이점을 명료하게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지

23) <학술적>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학 글쓰기의 경우, “논증”이라는 공통사항으로 합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앞 장에서 서술한 바 있으므로 생략한다.

24) 대표적으로 김현주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현주(2004)에 의하면 1930년대에 그 이전의 잡다한 글의 양식들이 수필이라는 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되었다. 특히 수필이라는 어사에는 서정적 소품이라고 여겨지는 관점이 지배적이었고 당시에 이에 대한 비판으로 ‘에세이’로의 확대를 주장하는 논자도 있었다. 에세이로의 확대에 필요한 것이 비평적 정신의 양양이었음이 강조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할 때 수필이라는 어사로 명명되는 개념에는 비평이나 시평이 엄연히 배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에세이는 번역어이기도 한 수필과는 다르다.

25) 각 대학 교재의 학술적 에세이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이윤빈(2012: 162)참조. (가)가톨릭대학교: 붓 가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나)성균관대학교: 어떤 문제를 자신의 관점에서 분석적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정립한 후,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견해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글. 학문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거나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새로운 발견이나 주장을 제시해야 한다거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글은 아님. 주장에 대한 논증이 핵심임. (다)연세대학교: 글쓴이

는 못하다. 사실 이것은 설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듯 에세이의 외연이 상당히 넓기 때문이기도 하지만²⁶⁾ 학문 공동체에서 특정한 용어의 개념이란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형성되는 과정의 맥락 아래에 놓여지는 것임을 상기할 때,²⁷⁾ 대학 글쓰기 교과에서 학술적 에세이에 대한 합의된 개념규정은 여전히 형성중인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실제 수업 시에, 학술적 에세이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대학 신입생들에게 이는 중고등학교에서의 수업과 대학의 수업이 어떻게 다른가, 학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등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설명의 소재로서 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술적 에세이의 개념 혼란이 특별히 문제적인 것이 아님을 특정 책을 예시로 들어 설명할 때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예컨대, 『대중의 반란』(1930)은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파격적인 주장이 기술되어 있는 글이다. 기본적으로 대중사회를 비판한 글이

의 독창적 관점이 드러난 비교적 짧은 형식의 글쓰기 양식. 자료의 객관성보다는 글쓴이의 주체적인 관점이 더욱 중요함. (라)한양대학교: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일련의 근거나 증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글. 학생들의 레포트나 소논문, 신문의 칼럼이나 형론, 학술 논문 등 논증의 형식을 통해 주장을 펼치는 길거나 짧은 글을 모두 포함함. 연대를 제외하고 모두 학술적 에세이의 핵심을 논증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정의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대학 글쓰기에서 논증적 글쓰기라 부르는 것과의 차이점이 없다. 굳이 학술적 에세이라 부르려면 논증적 글쓰기와 차별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연대의 정의가 좀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학술적 에세이와 논증적 글쓰기와 차이점을 글쓴이의 독창적 관점이란 것으로 좁혀놓고 있기 때문이다.

- 26) 대학에서 행해지는 학술적 글쓰기의 정의가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서 이윤빈(2012: 163-164)은 학술적 글쓰기에 대해 존재할 수 있는 표상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과 동시에 대학 신입생 필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표상의 존재가능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학술적 에세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27)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에세이에 대한 개념을 추적해보면 그것은 백여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는 에세이의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국은 에세이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는 그동안 수필이라는 어사의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기 때문에 거리의 시위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글이다. 그의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 글은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다. 그가 제시하는 근거 역시 일반적인 학술 논문과 비교할 때 매우 다채롭다. 현재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제도권 교육의 틀 안에서 볼 때, 그 글을 학술논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중의 반란』은 스페인의 3대 철학서의 하나이다. 즉 한편의 긴 학술적 에세이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글이다. 이는 에세이, 그리고 학술적 에세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합의되기 어려우며 글쓰기 장르의 개념이라는 것이 역사적 경험과 전통이라는 긴 시간을 통과하여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한 예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학술적 에세이의 개념은 에세이라는 개념의 혼란 때문에 정확하게 합의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대학 글쓰기 수업의 경우 논리적 글쓰기와의 차별점과 공통점을 설명함으로써 학술적 에세이 개념에 접근할 수 있다.

논리적 글쓰기와 학술적 에세이는 모두 학술적 글쓰기에 포함되는 글쓰기로서 공통점은 “논리”라 할 수 있다. 모든 글에는 논리가 들어 있는데 그것이 명시적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때, 제도권 글쓰기에서 이를 논증(논리)적 글쓰기라 하고, 명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글의 논리가 숨어 있는 경우, 이를 학술적 에세이라 명명할 수 있다.²⁸⁾

필자는 수업 시에, 논리적 글쓰기와 학술적 에세이의 차이점을 〈나〉의 드러남의 여부로부터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학술적 에세이는 〈독창성〉²⁹⁾이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강조점으로 자리잡게 된다. 에세이는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즉 자아와 세계가 만나는 장면이

28)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경우, 에밀 시오랑, 니체, 아도르노의 단상 등을 소개하기도 한다.

29) 이는 연세대학교 글쓰기 교재에서 강조되고 있는 학술적 에세이의 개념임을 밝혀둔다. 각주 25)참고.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독창성을 담보하는 장르이다. 반면에 논리적 글쓰기에서는 <나>라고 하는 어사를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나>라고 하는 어사를 숨김으로써 보편적 진술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논리적 글쓰기의 하나의 숨은 전략이었다는 것을 에세이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학생들은 쉽게 납득하는 편이다.³⁰⁾

요컨대 학술적 에세이는 <나>라는 어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르이며 나의 감정과 정서가 드러나는 것에 유보적일 필요가 없는 글의 장르이다. 이는 논리적 글쓰기와 두드러진 차이점이기도 하다. 논리적 글쓰기가 자신의 주장이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 장르라면 학술적 에세이는 <나>라는 어사의 자유로운 사용을 통해서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미처 알지 못하는,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글의 논리 안에서 (그러므로 보편성이 담겨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독창성을 보편성 안에 위치짓게 된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학술적 에세이란 <나>의 경험과 생각, 감정, 정서 등을 소재로 하여 독창성을 드러내면서도 학술적 글쓰기로서의 글의 논리를 갖고 있는 글쓰기를 의미한다.

한편 학생들에게 특별히 강조해야 할 것은 불쌍사나운 자기노출이어서는 좋은 학술적 에세이일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싸구려 감상문이 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보

30) 논리적 글쓰기(논증적 글쓰기)의 수업 시에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나>라는 표현을 써도 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 논술 교육에서 <나>라는 어사를 쓰지 말라고 배웠다는 것이다. 논술 시험의 경우, 특정 대학의 논술 시험의 조건 중, ‘<나>를 쓰지 마시오’라는 특별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진술의 보편성을 위한 조건 중의 하나로 부여된 것일 터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논리적 글쓰기에는 절대로 <나>라는 어사를 쓰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독서 경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수자들이 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논리적 글쓰기에서 절대적으로 <나>라는 어사를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 더 효과적인 논증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용가능한 것이다. 다만 논술의 전략상 <나>를 배제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을 뿐인 것인데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읽기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는가를 통해서 〈나〉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지 〈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과도한 자기 노출의 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수자는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학술적 에세이 쓰기 전 활동

필자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학술적 에세이 쓰기에 앞서, 영화 한편을 보고 토론을 거친 후 각자 주제를 잡아 학술적 에세이 쓰기를 하고 있다. 이 수업에서 감상하는 것은 『M.버터플라이』이다.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학생들이 학술적 에세이 주제를 저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영화를 감상한 후, 필자가 학생들에게 던지는 대주제이자 화제어는 “이미지와 실재”이다. 이 화제어가 워낙 넓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화제어를 좁혀 자신의 다양한 개성을 펼칠 수 있는 주제를 찾아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영화의 내용과 학생들의 토론 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데이비드 헨리 황의 희곡을 영화화 한 『M.버터플라이』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964년 북경, 프랑스 대사관에서 회계사로 일하던 르네 갈리마르는 나비부인을 열창하는 경극 배우 송릴링에게 반해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이 둘은 연인이 된다. 르네는 송릴링이 사랑을 나눌 때도 옷을 벗지 않는 것을 동양적인 것이라 여긴다. 프랑스 대사관의 부영사관으로 승진한 르네는 송릴링과 헤어져 1968년 프랑스로 돌아간다. 중국은 문화혁명을 비롯한 격변기로 혼란한 시기였지만 송릴링은 자신이 르네의 아들을 낳았다며 아들을 데리고 르네를 찾아 프랑스로 온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정보부에 체포된 르네는 자신이 사랑한 송릴링이 사실은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송릴링에게 넘겨준 정보 때문에 스파이 죄로 법정에 선다. 이후 르네 갈리마르는 감옥에 수감되고 그곳에서 나비부인을 공연하

면서 자결한다.

그 어떠한 정보도 없이 이 영화를 관람한 후, 학생들은 필자가 제시하는 세 가지의 주제로 조별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 ① 영화 『M.버터플라이』에 관하여
- ② 오리엔탈리즘에 관하여
- ③ 이미지와 실재에 관하여

영화를 흥미롭게 보는 학생도 있지만, 영화를 본 직후 이 영화에서 동성애 코드를 읽고 불쾌해 하는 학생도 있다.³¹⁾ 하지만 이들은 조별 과제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에 그보다 더 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³²⁾ 예컨대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조사를 보더라도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과 그 이전의 오리엔탈리즘 등등 학문적 공동체의 담론의 역사를 추적하여 발표하는 과정은 대학 신입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이다. 거기에다가 본 수업에서 작성해야 할 학술적 에세이의 화제어이자 토론의 주제로 등장하게 될, 세 번째 발표 주제인 이미지와 실재에 관한 발표에 이르면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워하면서도 자신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담론임을 알게 되면서 흥미를 보인다.

조별 발표 이후에는 “이미지와 실재”³³⁾에 관한 난상 토론이 조별로 펼쳐진다. 이 조별 토론에서는 화제어가 넓은 만큼 학생들의 논의도 다양하

31) 조별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 영화에서 〈사랑〉이라는 이미지와 실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유의미할지언정 동성애 코드를 읽어내는 것은 영화를 상당히 지엽적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32) 조별발표 주제인 ‘오리엔탈리즘’과 ‘이미지와 실재’는 영화 『M.버터플라이』의 주제로서 일반적으로 추출되는 것들이다.

33) 세 가지의 조별발표 주제 중 “이미지와 실재”가 앞의 두 주제를 포괄하는 주제이므로 토론 주제 및 최종 주제가 이것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다. 감상한 영화에 등장한 주인공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랑이 이미지인가 실재인가에서부터 과연 이미지와 실재란 무엇인가, 이미지와 실재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등의 문제가 자신들의 실제 경험 등을 토대로 다양하게 펼쳐진다.³⁴⁾ 특별히 난상 토론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중간고사 이전의 논리적 글쓰기의 쓰기 전 활동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인다.³⁵⁾ 이 토론에서는 자신의 입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근거들을 충분히 숙지한 채 토론에 임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의 허점들을 토론을 통해 알게 되지만 일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기에 답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토론을 하게 된다. 반면에 학술적 에세이 쓰기를 위한 이미지와 실재에 관한 난상 토론에서는 자신의 입장과 주장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정해질 수가 없는 주제이기에 열린 결말 속에 토론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말을 짓거나 정답을 얻지 못해도 학생들은 난상 토론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궁금증과 견해들을 피력했다는 경험을 갖는다.

이와 같은 토론의 시간을 거친 다음 시간에 학생들은 학술적 에세이를 쓰게 된다. 학술적 에세이의 화제어가 “이미지와 실재”로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글을 쓸 때는 화제를 좁혀 특정 주제를 잡은 후, 글을 쓰게 된다. 학생들은 오리엔탈리즘, 사랑, 소비, 우정, 등등 화제를 좁힌 후, 거기 에다가 “이미지와 실재”의 관계 맥락 안에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스무 명의 학생이 이 수업에 참여했을 경우, 이미지와 실재라는 화제어를 통해 학술적 에세이를 쓰게 되면 스무 개의 제각기 다른 주제의 학술적 에세이가 제출되는 것이다. 중간고사 이전의 글쓰기가 찬반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논리적 글쓰기로 제출될 수 있는 주제가 단지 두 가지에 불과했다면, 학술적 에세이는 이와 같이 광범위한 화제어 속에서 글을 씀으로써 학생들

34) 토론의 전 과정은 서기가 기록을 한다. 온라인으로 토론문이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다른 조에서 어떤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학생들은 서로 토론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다.

35) 예컨대 원자력 찬반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사형제도 문제 등등

의 다양한 개성과 관심사가 주제로 표출된다.

(3) 학술적 에세이 수업 결과

이 장에서는 수업의 실재를 통해 본 학술적 에세이 실습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필자는 학술적 에세이 쓰기에서 학생들에게 〈학술적〉에 방점을 찍어도 되지만, 〈에세이〉에 방점을 찍어서 써도 된다고 강조한다. 전자의 경우, 사실상 논증이 보다 두드러지게 강조되기 때문에 논리적 글쓰기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학술적 에세이가 제출되기도 한다.³⁶⁾ 반면에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쓸 경우,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 학술적 에세이의 특수성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려 할 때 〈에세이〉에 방점을 두라고 언급하면,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개성이나 독창성이 드러나는 글이 제출되는 빈도가 높았다. 이 논문 제목에서의 ‘(학술적) 에세이’ 쓰기에서의 괄호는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다. 다음은 실제 수업에서 제출되었던 글이다. 두 학생의 글 모두 같은 수업시간에 씌어진³⁷⁾ 글이다. 첫 번째 학생의 경우, 학술적인 것에 보다 방점이 두어진 경우이고,³⁸⁾ 두 번째 학생의 경우 에세이라는 것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두 학생의

36) 중간고사 이전의 논리적 글쓰기 과정을 살펴보면, 찬반 토론의 과정을 거쳐 글쓰기가 진행된 후,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글쓰기가 행해진다. 따라서 논증이 글쓰기의 주된 방식이 된다. 학술적 에세이에서는 찬반토론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학술적’인 글이라는 것이 강조될 때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주된 방식으로 학생들이 주로 택하는 방식이 논증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성이나 독창성이 드러나는 글을 제출하는 경우가 드물다. 개성이나 독창성이 드러나게 하려면 학생들에게 에세이에 방점을 두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7) 이 표기는 국립국어연구원의 규정에 의하면 표준어 표기법에 어긋난다. 하지만 이를 ‘쓰인’ ‘쓴’ 등으로 표기하면 말의 뉘앙스와 범주가 달라진다. ‘씌어진’을 대체할 표기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함을 밝혀둔다. 이후에도 동일하다.

38) 〈학술적〉인 것에 방점을 두어, 그에 강조점을 두어 써도 무방함을 주지시킴을 물론이다.

글 모두 훌륭한 학술적 에세이로 평가를 받았다. 다만 독창성이나 개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두 번째 학생의 글이 좀더 낫다고 할 수 있다.³⁹⁾

〈학생 글 ㉞〉

제목: 보면 안다고?

요즘에 TV에 나오는 아파트 광고를 보면 아파트보다는 여배우가 주인공인 듯한 착각이 든다. 여배우의 아름다운 모습에 덧붙여 화목한 가정의 모습, 환상적인 분위기만을 보여주면서 그녀는 우리에게 당신도 귀족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곳에 살기만 하면 귀족이 될 수 있다는데 과연 누가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겠는가?

아파트 광고만 보면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는 부부싸움이라든지 가정 내의 불화는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 이런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광고를 통해 우리는 아파트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실제로 아파트의 크기, 구조, 위치 등은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지만, 광고를 통해 이미지에 현혹되어 소비 욕구가 창출될 뿐이다. 즉 대상의 사용가치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대상의 이미지에만 몰두한 채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지에만 의존하는 경향은 비단 소비의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정치에서도 이미지는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선거에서 후보들은 이미지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실체 이상으로, 심지어 무관하기도 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대중의 지지를 호소한다.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당선되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가 기업 경영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유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 탁월했다고 해서 국가 경영에 필요

39) 매 학기 이 두 편의 글을 학생들에게 읽어주고 학생들에게 평가를 맡기면 절대다수가 두 번째 학생의 글에 후한 점수를 준다. 두 편의 글 모두다 잘 쓴 글이라는 것을 강조한 후 평가할 때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평가는 동일하다. 평가의 차이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해 보면 대답들은 대동소이하다. 첫 번째의 경우는 자신도 노력하면 쓸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본 듯한 글이라는 대답이다. 하지만 두 번째 글은 그 글의 당사자만이 쓸 수 있는 글이며 내용도 공감 이 가서 좋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곤 한다.

한 역량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즉 그의 이미지가 실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이미지 재생산 과정을 거쳐 실재를 과장하고 심지어 이미지와 실재가 전혀 무관한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이미지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대상들의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가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그것들은 대상의 실체라기보다는 대상의 이미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이르렀다. 기본적으로 이미지는 실체의 허상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이미지가 실체의 근거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실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미지가 우리의 인식대상이며 판단의 기준이 되면서 실체의 진위 여부 혹은 그것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는 공허한 것이 되었다. 즉 우리는 이미지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미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삶의 속도 자체가 빨라졌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세상의 사물들은 주마간산처럼 스쳐지나가는 것이 되어 버렸고, 이 과정에서 사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여유가 제거되었다. 현대 사회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효율성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작용도 이를 따라가게 된 것이다. 즉 이성에 의한 사고 작용을 거쳐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에 의해 즉각적으로 촉발된 감정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필요 이상의 소비를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역시 이미지에 함몰되는 경향을 낳았다. 고리타분하게 제품의 기능만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소비자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힘들다. 오히려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이미지를 이용해 이성의 영역을 거치지 않은 채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본다. 하지만 에로스를 통해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하여 존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마치 동굴의 그림자처럼 실재하는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도 에로스를 통해 실체에 접근해야 할 텐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미지에 더욱 몰두해가는 상황에서 참된 존재에 도달하는 일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미지와 실재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씌어진 글이다. 광고, 선거 등을 예로 들어 우리의 현실에서 실재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지와 실재라는 대주제이자 화제어에서 광고, 선거 등으로 화제를 좁혀 진술한 점에 무리가 없었다. 이미지와 실재에 관한 진술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경우, 그 관계성을 잘못 진술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글의 경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글은 대학 신입생이 쓴 훌륭한 학술적 에세이임에 틀림없지만 독창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는 학술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쓰다보니 대학신입생이 가진 사유의 폭 안에서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사유를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는 ‘학술적’에 방점을 두어, 즉 학술적인 것에 보다 강조적인 글이 기술될 경우 독창성이 반감되는 측면을 지양할 수 있는 소재의 개발이 요청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학생 글④〉

제목: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 본 적이 있는가

등교나 외출 때문에 거의 매일 버스에 오르는 나는 항상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 눈에 잘 띄지 않을뿐더러 입구로부터 가장 멀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 바로 맨 뒷줄의 창가 자리이다.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이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요즘의 대부분의 학교와 달리 두발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서 모든 학생들이 머리를 동자승처럼 거의 뽁뽁 밀고 다녀야 하는 그런 학교였다. 한참 외모에 민감할 시기였기에 머리를 뽁뽁 밀어버린 내 모습이 어찌나 신경쓰였던지 어딜가나 사람들이 내 머리만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특히나 등하교 길에 버스를 타는 동안 버스 한가운데 앉아 여고생들의 시선을 견뎌내는 일은 너무나도 고역이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니 바로 그 맨 뒷줄의 창가자리였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고개를 억지로 돌리지 않는 이상 아무도 나를 볼 수 없었기에 왠지 모를 안락감마저 들곤 했다. 마치 나만을 위해 만들어

진 자리 같았다.

대학생이 된 지금이야 나름대로 잘 꾸미고 다니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상관없어졌는데도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버스에 타는 모든 승객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남자로서 예쁜 여자가 보이면 자연스레 시선이 그쪽에 고정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표정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그 자리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늦은 저녁 축 처진 어깨로 한 손에는 서류가방을 간신히 움켜쥔 채 버스가 코너를 돌 때마다 힘없이 휘청이는 양복쟁이의 모습 속에서 매일 직장 상사의 구박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시달리는 우리네 아버지들이 보였고, 버스 막차에서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땀냄새 나는 꼬질꼬질한 교복을 입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고등학생의 모습 속에서는 매일 늦게까지 야자를 하고 학원을 다니며 대학입시라는 압박 때문에 항상 가슴 졸이던 나의 지난 날과 고단한 대한민국 수험생의 애환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젠가 한번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밤을 새우고 이른 새벽에 첫차를 타게 되었는데 상당히 이른 시간이라 텅텅 비어 있을 줄 알았던 나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도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일터에 가기 위해 버스를 꼭 채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방탕했던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고 말로나마 듣던 우리나라 서민들의 힘겨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버스 맨 뒷줄의 창가자리에서는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보이고 눈물이 보인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서민체험을 한답시고 시장이나 돌면서 악수나 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서민들의 미소 뒤에는 삶의 힘겨움 때문에 흐르는 피눈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 리 없기 때문이다. 삶의 무게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진실된 표정이 보고 싶다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버스의 맨 뒷줄 구석자리에 이른 새벽부터 운행이 끝날 때까지 딱 하루만 앉아 있어 보라고 권해주고 싶다.

버스 뒷줄 창가자리. 비록 아직 세상을 많이 살아본 것도 모진 풍파를 겪어본 것도 아니지만 웬지 그 자리에만 앉게 되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사는 세상

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 같다. 앞으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다. 오늘도 내일도 버스는 사람들의 삶을 담고 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잘 씌어진 에세이임과 동시에 이미지와 실재라는 대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학술적 에세이로도 손색이 없다. 관찰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선함, 이미지와 실재의 관계를 자신의 경험 속에서 찾은 자신감은 글의 진솔함과 독창성을 담보하고 있다.⁴⁰⁾

㉗와 ㉘를 비교하자면, 글 ㉗는 이미지의 대표적 소재로 활용되는 광고나 선거에 대한 상투적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글 ㉘는 자기만의 경험을 활용하여 대체불가능성의 진술을 하고 있으면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킬만한 정서적 경험을 소재로 삼아 비판성까지 획득하는 보편성을 보여줌으로써 유의미한 독창성을 제시했다.

실제 수업시 특기사항은, 학생들에게 이 수업시간에 쓰는 학술적 에세이는 전략적으로 <학술적>이 아니라 <에세이>에 방점을 찍어도 된다고 강조하게 되면, 이미지와 실재라는 대주제 안에서 실제로 제출되는 글들의 경우, 에세이적인 성격이 강조되더라도 학술적 에세이로서도 무리가 없는 글들을 써 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논문의 제목에서 (학술적)이라고 괄호를 친 이유가 그것이다. 수업 지도 전략으로써 ‘학술적’에 괄호를 칠 때 학생들은 오히려 독창성과 개성이라는 측면에서 훌륭한 학술적 에세이를 제출한다. 에세이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학생들의 독창성을 드러내게 하려는 수업 전

40) 이 글을 쓴 학생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었다. 수업시간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표정도 밝지 않았다. 학기 마지막에 잠시 이야기 할 기회가 있어 물었더니, 대학 생활이 재미가 없으며 글쓰기 수업뿐 아니라 다른 수업에도 흥미가 없다고 했다. 중간고사 이전의 논리적 글쓰기는 논술과 다를 바 없는 글쓰기여서 재미가 없었지만 학술적 에세이 쓰기는 지금까지 써왔던 글쓰기와 달라서 재미있었다고 했다.

략인 셈이다. 화제어가 이미 학술적인 주제를 동반하는 것이기에 학생들이 〈학술적〉에 매몰되면 그들의 개성이 드러나는 통로가 적어진다. 하지만 〈에세이〉를 강조하면 그들은 자기자신을 자신있게 드러내면서 독창성을 갖추게 되고, 대주제의 맥락에 의해서 그들은 자신 현재의 상황에서 소화된 학술적인 글을 쓰게 된다.

4. 학술적 에세이 쓰기의 효과와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이 장에서는 에세이의 가치를 중심으로 대학 글쓰기에서의 학술적 에세이 쓰기의 효과와 의미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학술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양식 가운데 하나인 논리적 글쓰기(논증적 글쓰기)는 전형적인 근대적 사고의 산물이다. 근대적 사고란 기도(企圖)라든가 계획 등이 그 중심이며 그것은 곧 방법주의로 이어진다. 이 방법주의의 한 양식이 글쓰기에서는 논증적인 글쓰기 양식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 방법주의에 의하면 의도하는 틀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철저하게 배제된다. (이마무라 히토시, 1999: 59-60) 주지하다시피 배제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 ‘개념’이다. 개념의 형성 과정에서는 비개념적인 것은 배제되고, 사유 형식은 동일성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성미영, 2011: 269) 아도르노에 의하면 현 사회는 이와 같은 사유체계에 따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체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성미영, 2011: 269) 그러므로 현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결과물을 그 사회에 충실한 글쓰기 양식으로 기술하는 것은 엄밀하게 볼 때 모순이라 할 수 있다.

대학 글쓰기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인 정신이 녹아 있는 글을 쓰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신입생들은 초중고 시절에 기성의 것들에 순종한 대가로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이들이다. 그들은 교과서나 참고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말, 주요 언론

의 말,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말들이 정답이라고 배웠고 믿은 자들이다. 최소한 취직을 위해서 대학을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판적 정신이 글쓰기에 강조되는 것이다. 글쓰기 교수자들은 글쓰기의 기술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을 알려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글쓰기는 종이 위에서 생각하는 행위이다.” (윌리엄 진서, 2007: 128) 글쓰기의 형식적인 틀은 하나의 생각하는 방식을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증적 글쓰기 방식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논리의 틀 안에서 배제되었던, 작지만 중요한 것들까지도 글쓰기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글쓰기 장르인 에세이적인 글쓰기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글쓰기 장르 중의 하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하는 방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앞서 기술했듯이 에세이는 개념적인 사유에 반대하는 글의 장르이다. (성미영, 이마무라히토시 참조) 따라서 학술적 에세이를 글쓰기 수업에서 제시할 때 학술적 에세이에 대한 합의된 개념의 부재를 소개하는 것은 개념적 사유의 한계를 설명하는 측면에서 모순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개념적 사유의 틀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갖게 한다는 의미 역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유는 학생들에게 글쓰기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인터넷 문화에 어려서부터 노출되어 SNS 등의 다양한 글쓰기를 접한 대학 신입생에게 제도권 글쓰기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논리적 글쓰기만으로는 그들을 글쓰기의 즐거움으로 이끌기가 쉽지 않다. 그 즐거움의 출발은 일단 글쓰는 자에게 가장 편안한 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윌리엄 진서는 그러한 글쓰기 장르가 논픽션이라고 말한다.

논픽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관찰할 수 있는 것,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쓸 수 있게 해준다. 젊은 사람들과 학생들에게는 특히 더 그렇다. 그들은 자기 삶과 관계가 있거나 자기에 맞는 주제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쓴다. 자기가 가장 잘 쓸 수 있고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분야가 논픽션이라면 그것이 열등한 장르라고 생각하지 말자. 구분해야 할 것은 좋은 글과 나쁜 글뿐이다. 형식이 어떻든, 그것을 무어라 부르든 좋은 글은 좋은 글이다. (윌리엄 진서, 2007: 77)

윌리엄 진서가 말하는 논픽션을 에세이적 글쓰기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글쓰기에 부담을 느끼는 소극적인 대학 신입생들이 글쓰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수자는 물론이려니와 학생들 본인에게도 글쓰기의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일인 것이다. 글쓰기 수업 초반에 학문 공동체라는 것에서 본인들이 소외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이와 같은 학술적 에세이 쓰기는 그들로 하여금 본인들 자체가 학문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논리적 글쓰기와 다르게 학술적 에세이에서 강조되는 것이 독창성인데 그 독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나〉를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독창성이 인정받을 때, 그것이 새롭게 학문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것임을 그들은 학술적 에세이 개념의 다양성과 변화에 대한 설명에서도 들은 바 있기 때문이다.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한다는 교육의 본래적 참뜻을 지키는 보루와 같은 역할이 인문교양교육에 여전히 담지되어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글쓰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그간의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아보게 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술적 에세이 쓰기에서는 논리적 글쓰기에서 배제되었던 〈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그들에게 〈나〉는 억압되고 배제되었던 그들의 현재이기 때문이다. 대학 신입생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청소년기의 중요

과업을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이국환, 2008: 153) 늘 자기의 생각과 취향에 앞서 누군가의 견해가 더 중요하고 자기의 것은 덜 중요하다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제도권에서의 주된 글쓰기인 논리적 글쓰기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우선적 배제의 대상이었던 것이다.⁴¹⁾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나〉는 글쓰기의 주체이다. 학술적 에세이에서 글쓰기의 대상을 ‘자기’로 삼을 경우 자신의 정체성 형성의 이야기도 될 수 있으며,⁴²⁾ 글쓰기 주체와 글쓰기 대상이 분리될 경우⁴³⁾ ‘학술적’인 것의 성격이 보다 두드러진 글이 써어질 것이다. 전자의 경우이건, 후자의 경우이건 자신의 개성과 경험이 원천이 되어 기술되는 학술적 에세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나〉의 경험과 생각이 소중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촉발된 자발성을 토대로 자기 혹은 타자에 대한 비판적인 사유도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개성을 존중함으로써 창의성이 계발될 수 있는 글쓰기의 장을 제공한다는 의미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것, 생각한 것, 느낀 것 등을 글쓰기 과정을 통해 드러낼 때,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라는 간접적 효과 역시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나〉에 대한 글쓰기의 활용은 논평과 피드백에서도 매우 구체적

41) 중등과정의 논리적 글쓰기 수업에서 〈나〉라는 어사를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배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각주30)참고하라.

42) 이 경우 자기탐색의 글쓰기 양식인 회고록이나 자서전 등의 장르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양숙(2011), 최인자(1999)를 참조할 것/ 이국환(2008: 153-161)은 자기성찰로서의 글쓰기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43) 학술적 에세이에서 글쓰기 주체와 대상의 분리란 주체의 경험과 생각이 글의 대상을 야기하는 촉발제로 사용되더라도 궁극적으로 글쓰기 주체가 글의 대상과는 직접적 관련을 갖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주체와 대상의 분리로 말미암아 학술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에세이가 제출될 확률이 높다. 가령 롤랑바르트의 「장남감」같은 글은 그러한 학술적 에세이의 형식을 잘 예시해주는 글이다.

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자황, 2012: 538)

대학 글쓰기에서 학생들의 표절 문제로 인한 글쓰기 윤리의 측면은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학생들의 글쓰기 표절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 하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글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의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글쓰기의 윤리를 가르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표절과 상관없는 상황 속에서 글쓰기의 경험을 갖게 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학술적 에세이 쓰기 경험은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다.

글쓰는 자로서의 최대한의 윤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글의 장르를 불문하고 좋은 글을 쓰겠다는 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 글쓰기의 자의식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최소한 자기 생각에 대한 존중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서 글쓰기 교수자로서 역할은 학생들의 생각이 글이라는 틀 안에서 존중받을 만하도록 썩어지게 지도하는 일일 것이다. 존중받을 만하게 글이 썩어지게 하려면 글쓰기의 세부적인 기술(skill)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 ‘감정’ 등을 의미 있도록 만드는 방식을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이 논문이 제시한 학술적 에세이 쓰기는 그러한 글쓰기 방식의 한 예시이다.

참고문헌

- 구자황(2012), 「대학 글쓰기 교재의 분기와 신경향」, 『반교어문연구』 32권, 반교어문학회.
- 권혁명(2012), 「대학 글쓰기 교육 현황과 그 발전 방향-고려대학교 〈사고와 표현〉 강의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20,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 김경란(2007), 「엔첸스베르거의 에세이학」, 『독일언어문학』 38권, 한국독일언어학회.
- 김미선(2012), 「논증적 역사 글쓰기가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역사교육』 121집, 역사교육연구회.
- 김병길(2012), 「대학글쓰기 교육과 인문학 지평의 확장」, 『우리어문연구』 43권, 우리어문학회.
- 김현주(2004), 「1930년대 수필 개념의 구축 과정」, 『한국 근대 산문의 계보학』, 소명.
- 나은미(2008),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 현황 분석-각 대학의 신입생 대상 글쓰기 교재 분석을 통하여」, 『우리어문연구』 32권, 우리어문학회.
- 박정길(2006), 「대학생 독서부진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7권 4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박정하(2003), 「인문 교육의 근본 : 글쓰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시대와 철학』 14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서정혁(2006), 「대학의 교양교육과 글쓰기 교육」, 『독서연구』 제15호, 한국독서학회.
- 성미영(2011), 「아도르노 철학에서 언어, 형세Konstellation, 에세이」, 『동서철학연구』 60호, 한국동서철학회.
- 손동현(2006), 「교양교육으로서의 ‘학술적 글쓰기’ 교육」, 『철학논총』 42집, 새한철학회.
- 신현규(2011), 「중앙대학교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전망」, 『어문논집』 제48호, 중앙어문학회.
- 원만희(2009), 「대학 글쓰기 교육의 개선 방향과 방법을 위한 시론」, 『교양교육연구』 3, 한국교양교육학회.

- 원진숙(2005), 「대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작문 교육 방법」, 『어문논집』 51, 민족어문학회.
- 이국환(2008), 「전통적 교양과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연구」, 『석당논총』 42권, 동아대석당학술원.
- 이양숙(2011), 「자기서사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0집(15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 이윤빈(2012), 「대학 신입생 대상 ‘학술적 글쓰기’ 의 장르적 의미와 성격」, 『작문연구』 14권, 한국작문학회.
- 이재성(2012), 「학술적 에세이에 나타난 대학생의 문장 구성 양상 연구」, 『교양교육연구』 6권 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 정희모(2001), 「〈글쓰기〉 과목의 목표설정과 학습방안」, 『현대문학의 연구』 17권, 한국문학연구학회.
- 정희모(2008), 「대학글쓰기 교재의 분석 및 평가 준거 연구」, 『국어국문학』 148호, 국어국문학회.
- 지현배(2012), 「대학 글쓰기 강좌의 개선을 위한 교재와 강의안 구성 시론」,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 진정일(2011),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한철학』, 제62집, 범한철학회.
- 최인자(1999), 「정체성 구성 활동으로서의 자전적 서사 쓰기」, 『현대소설연구』 11권, 한국현대소설학회.
- 한금윤(2006), 「대학에서 학제적 독서 교육의 실제와 전망」, 『독서연구』 제15호, 한국독서학회.
- 윌리엄 진서(1976), 이한중 옮김, 『글쓰기 생각쓰기』, 돌베개, 2007.
- 이마무라 히토시(1996), 이수정 옮김, 『근대성의 구조』, 민음사, 1999.

[초 록]

대학 글쓰기에서의 (학술적) 에세이 쓰기의 효과와 의미

이승은

이 글의 목적은 대학 글쓰기에서의 학술적 에세이 쓰기의 효과와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다. 대학 신입생들이 글쓰기에 흥미를 되찾고 글이 갖고 있는 힘을 경험케 하는 글의 장르로서 학술적 에세이 쓰기를 제한한 글이기도 하다. 인문교양교육의 하나인 대학 글쓰기에서 논증적 글쓰기만이 학술적 글쓰기로 서 강조될 필요는 없다. 정서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면서도 학술적 글쓰기로서의 논리성 역시 담보할 수 있는 글의 장르인 학술적 에세이가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논의는 실제 수업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학술적 에세이의 개념에 관해서도 학생들의 질문에 입각하여 논리적 글쓰기와 차별성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개념의 범주에 접근하였다. 학술적 에세이에서는 논증적(논리적) 글쓰기에서 배제되었던 <나>를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논증적 글쓰기에서 배제되었던 <나>의 활용이 글쓰기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에세이는 글쓰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소외를 넘어설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학술적 에세이의 장르적 조건은 논증적 글쓰기와 다르게 <나>의 드러냄의 자유로움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독창성>을 이끌 수 있는 대체불가능성의 방법적 조건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이라는 장르가 갖고 있는 보편성의 장 안에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 정서 등이 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경험의 장을 제공한다. 독창성이 드러날 수 있는 글의 장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 역시 계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학술적 에세이 쓰기의 실제 지도법에서 과도한 주관성에 대한

노출의 경계 및 공공적 의미를 갖게 하는 학술적 요소에 대해서는 교수자의 성실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주제어〉 학술적 글쓰기, 학술적 에세이, 논증적 글쓰기, 에세이, 대학 글쓰기, 소외, 독창성, 창의성, 〈나〉, 정서

[Abstract]

Effectiveness and Implications of Academic Essay Writing in College Writing Programs

Lee, Seung-Eun

This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and implications of academic essay writing in writing courses at college. In addition, writing of academic essays is proposed, in this study, as a genre to enable college freshmen to recover their interests in writing and to experience the power of writing. There is no reason to emphasize only logical writing as academic writing in terms of college writing program, which is one of liberal arts and humanistic education. Academic essay is able to provide cherishable experiences to students in that it allows them to express their emotions and feelings freely and to secure logic required by academic writing. This study is based on experiences of actual classes. Likewise, as for the perception of academic essay, students raised questions first and then listened to the explanations on what difference it has from the logical writing- which was the way to approach the conceptual scope of academic essay. In case of academic essay, "I" (which is excluded from logical writing) can be freely exposed, working as the significant element of academic essay. As a matter of fact, academic essay writing has the conditions which help students overcome 'alienation' that students can experience in writing classes, in that the usage of "I" (which is ignored by logical writing) can be considerably meaningful. In other words, the genre properties of academic essay is to show "I" freely, different from logical

wiring, which implies irreplaceable methodological conditions required to realize originality and also provides positive experiences because students can understand their experiences feelings, and emotions can be important materials for writing in the boundary of universality which the writing (a genre) has. It's also true that students can develop their personality and creativity when they are exposed to the writing genre to unveil their originality. Meanwhile, when it comes to the actual teaching on how to write academic essay, a teacher essentially needs to take precautions against the exposure to excessive subjectivity to pay attention to academic factors which make a writing public implication.

Keywords : Academic writing, Academic essay, Logical wiring, Essay, College wiring program, Alienation, Originality, Creativity, "I", Emotion

이 논문은 2014년 5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4년 5월 28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 뒤 2014년 6월 1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됨.